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수희¹ · 최은숙²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¹,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²

The Impact of Job Stress on the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y among Nurses in Small-Medium Sized General Hospitals

Jung, Suhee¹ · Choi, Eunsuk²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²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job stress on the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among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8 nurses working at 15 small-medium sized hospitals in D city.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job stress scored average 3.67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y scored average 4.35. Job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y. It explains 9.49% of the variance. **Conclusion:** Universal and inevitable job stress among nurses should not exceed optimum level to assure patient safety. So, personal and organizational efforts to manage job stress are needed.

Key Words: Job stress, Nurse,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y, Hospita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 받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요구는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병원 의료종사자들은 이를 제공해

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Kim, Kang, An, & Sung, 2007).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법 제 58조 1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며, 간호사들이 양질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Kim, 2015).

주요어: 직무 스트레스, 간호사, 환자안전간호활동, 병원

Corresponding author: Choi, Eunsu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420-4936, Fax: +82-53-421-2758, E-mail: eschoi2007@k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정수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an 10, 2017 | Revised: Jan 19, 2017 | Accepted: Feb 23,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환자 안전사고는 그 자체가 환자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Jeong, Seo, & Nam, 2006; Lee, 2015). 환자안전은 의료제공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을 없애거나 불필요한 위해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2004). 따라서 환자안전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안전간호활동이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환자확인, 낙상, 충분한 설명, 감염, 구두처방, 수술/시술, 의사소통, 소방안전, 의리기 관리, 구두처방, 투약간호, 욕창예방, 수혈간호, 응급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Lee, 2009). 이러한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환자안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Kim, 2011). 환자안전의 책임은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에게 있지만, 특히 간호사는 의료 인력 중 약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하며 환자안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과 인력부족, 근무시간 초과, 낮은 임금등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직무 스트레스는 높고(Kim & Yi, 2012), 간호사 인력이 많은 2등급 병원의 간호사에 비해 간호사 인력이 작은 3등급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am, 2010).

간호사의 업무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어느 정도는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원동력이 되나, 만성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소진되거나 업무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양질의 간호제공은 물론 효과적인 간호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Park, 2016).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과중한 업무,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전문직 역할갈등, 병동의 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유발된다(Kim & Gu, 1984; Choi, 2009). 타 직종 근로자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전체 근로자 평균인 17.9%보다 4배정도 높은 수치인 평균 68.7%를 보였으며,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업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부담이 매우 높았다(Kim, 2012).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간호사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직무 불만족과 낮은

조직몰입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Son, & Yang, 2014). 그러나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갖고 있어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Kim, & Yi, 2012).

환자안전간호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환자안전관리활동 관련요인(Jeong et al., 2006),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간호활동의 관계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안전문화에 환자안전간호활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2010). 또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은 의료인 개인의 문제보다는 병원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았으며(Kim et al., 2007) 중소병원 간호사가 인지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수준과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문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D시 소재 300병상 미만의 15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자료 조사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5일이었고, 설문조사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KNU 2016-0027)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최소 표본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alpha = .05$, effect size $d = .15$, 검정력 $1-\beta = .95$ 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16개로 설정한 표본 수는 22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74부를 배부하였다. 그중 미회수,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부를 제외한 최종 25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Kim와 Gu (1984)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Choi (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 하위영역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량 과중 4문항,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4문항,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6문항, 의료진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5문항, 전문직의 역할갈등 3문항, 병동의 물리적 환경 3문항,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 7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자우편을 통해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Choi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95였다.

2) 환자안전간호활동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7)가 개발한 의료기관평가 항목 중 간호사의 환자안전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여 Park (2009)이 설문지 형태로 작성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9개 하위영역 7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역별로는 투약 14문항, 낙상 12문항, 감염 9문항, 소방 4문항, 대상자 식별 6문항, 의사소통 4문항, 수혈 16문항, 시설물 점검 1문항, 대상자 교육 5문항이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수행 한다' 5점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간호활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자우편을 통해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Park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5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AS 9.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파악하였고,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6~30세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31~35세 25.6%, 41세 이상 20.2%, 36~40세 14.7%, 20~25세 8.5%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98.1%, 남자가 1.9%였다. 종교는 무교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20.9%, 기독교 16.7%, 천주교 7.4%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62.8%, 기혼 37.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3년제 66.3%, 간호학사 이상이 33.7%였고, 총 임상 근무 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5년 미만이 23.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3.6%, 15년 이상이 17.8%, 1년 미만은 3.9%였다. 현재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실 15.1%, 외래 10.5%, 기타 7.8%, 응급실 7.4% 순이었다. 근무 형태는 교대근무 59.3%, 상근근무 40.7%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은 201~250만원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이 21.7%, 251만원 이상은 17.1% 순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2.9%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호사 이상이 18.2%, 책임간호사가 8.9%였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상태($t=2.0, p=.04$)는 직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인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기혼인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현재 근무 부서($F=2.9, p=.02$), 근무형태($t=2.9, p=.004$), 급여수준($F=5.2, p=.006$)은 환자안전간호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부서는 외래에서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일반병동이나 기타 부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 형태는 상근근무가 교대근무보다 환자안전간호 활동 수준이 높았다. 급여 수준은 200만원 미만에서 환자안전 간호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집단과 201~250만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2.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수준과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평균±표준편차는 각각 3.67 ± 0.6 점과 4.35 ± 0.4 점이였다.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업무량 과중이 3.94 ± 0.7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3.87 ± 0.7 점,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 3.79 ± 0.8 점,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 3.64 ± 0.8 점, 병동의 물리적 환경 3.47 ± 0.8 점, 전문직의 역할 갈등 3.46 ± 0.8 점, 의료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3.44 ± 0.7 점 순이였다. 환자안전간호활동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투약이 4.47 ± 0.5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감

Table 1. Differences of Job Stress and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Job stress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	22 (8.5)	3.52±0.6	0.6	4.33±0.5	1.1
	26~30	80 (31.0)	3.70±0.6	(0.70)	4.29±0.5	(0.35)
	31~35	66 (25.6)	3.71±0.6		4.32±0.4	
	36~40	38 (14.7)	3.62±0.6		4.40±0.5	
	≥41	52 (20.2)	3.67±0.5		4.44±0.4	
Gender	Male	5 (1.9)	3.27±0.8		-1.6	
	Female	253 (98.1)	3.68±0.6	(.12)	4.35±0.4	(.86)
Religion	Christianity	43 (16.7)	3.60±0.5	1.33	4.40±0.4	0.3
	Buddhism	54 (20.9)	3.62±0.6	(0.27)	4.33±0.5	(0.83)
	Catholic	19 (7.4)	3.90±0.5		4.36±0.3	
	None	142 (55.0)	3.68±0.6		4.34±0.5	
Marital status	Single	162 (62.8)	3.73±0.6		2.0	
	Married	96 (37.2)	3.57±0.6	(.04)	4.37±0.4	(.52)
Educational level	3-year diploma	171 (66.3)	3.65±0.6	-0.8	4.36±0.4	0.4
	Baccalaureate degree	87 (33.7)	3.71±0.6	(.50)	4.33±0.5	(.67)
Total length of career (year)	<1	10 (3.9)	3.53±0.8	0.4	4.38±0.5	0.1
	1~<5	61 (23.6)	3.73±0.6	(0.83)	4.33±0.4	(0.97)
	5~<10	80 (31.0)	3.66±0.6		4.33±0.5	
	10~<15	61 (23.6)	3.64±0.7		4.36±0.4	
	≥15	46 (17.8)	3.68±0.5		4.38±0.5	
Work place	Ward ^a	153 (59.3)	3.68±0.6		0.1	
	OR ^b	39 (15.1)	3.68±0.6	(0.99)	4.46±0.5	(0.02)
	ER ^c	19 (7.4)	3.65±0.7		4.42±0.4	
	OPD ^d	27 (10.5)	3.64±0.6		4.54±0.4	
	Others ^e	20 (7.8)	3.62±0.6		4.29±0.4	
Shift work	Yes	153 (59.3)	3.67±0.6		0.2	
	No	105 (40.7)	3.68±0.5	(.88)	4.44±0.4	(.004)
Monthly salary (10,000 won)	≤200 ^a	56 (21.7)	3.62±0.5	0.5	4.51±0.5	5.2
	201~250 ^b	158 (61.2)	3.70±0.6	(0.61)	4.29±0.4	(0.006)
	≥251 ^c	44 (17.1)	3.63±0.6		4.37±0.4	
Position	Staff nurse	188 (72.9)	3.67±0.6		0.3	
	Charge nurse	23 (8.9)	3.76±0.5	(0.73)	4.34±0.5	(0.72)
	Head nurse	47 (18.2)	3.64±0.5		4.40±0.5	

OR=operating room; ER=emergency room; OPD=outpatient department; Others=endoscopy room, intensive care unit; a,b,c,d,e=Scheffé test.

염 4.44±0.5점, 수혈 4.44±0.4점, 대상자 식별 4.41±0.6점, 낙상 4.37±0.5점, 시설 점검 4.32±1.0점, 대상자 교육 4.19±0.8점, 의사소통이 4.09±0.9점, 소방이 3.79±1.0점 순이었다(Table 2).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은 정(+)의 상관관계($r=.15, p<.05$)를 보였다. 환자안전간호활동은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r=.176, p<.01$), 전문지식 과기술부족($r=.14, p<.05$), 전문직의 역할 갈등($r=.13, p<.05$), 병동의 물리적 환경($r=.13, p<.05$)에 대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환자안전간호활동의 하부영역 중 감염($r=.15, p<.05$), 시설 점검($r=.18, p<.01$), 대상자 식별($r=.13, p<.05$), 의사소통($r=.15, p<.05$), 투약($r=.13,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3.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단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현재 근무부서, 근무 형태, 급여 수준을 보정변수로 투입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 VIF 값은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분석결과, 보정변수 중에는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었고, 직무 스트레스($t=2.61, p=.010$)는 안전간호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총 변량의 약 9.5%를 설명하였다(Table 3).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Job Stress and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N=258)

Variables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M±SD or r)										
	A	B	C	D	E	F	G	H	I	Total	
Job stress	4.37±0.5	4.19±0.8	4.44±0.5	4.32±0.9	3.79±1.0	4.41±0.6	4.09±0.9	4.47±0.5	4.44±0.4	4.35±0.4	
a	3.94±0.7	-.02	-.01	.01	.06	-.03	.02	.02	.03	.11	.03
b	3.87±0.7	.06	.09	.15*	.17**	.08	.15*	.17**	.12*	.07	.14*
c	3.79±0.8	.11	.17**	.12	.20**	.08	.15*	.18**	.16*	.12	.18
d	3.64±0.8	.05	.06	.10	.14*	-.03	.08	.09	.13*	.06	.09
e	3.44±0.7	.10	.07	.17**	.09	.04	.09	.07	.05	.07	.11
f	3.47±0.8	.09	.12	.12	.17**	.04	.13*	.13*	.10	.06	.13*
g	3.46±0.8	.14*	.13*	.14*	.17**	.03	.09	.13*	.08	.08	.13*
Total	3.67±0.6	.09	.12	.15*	.18**	.03	.13*	.15*	.13*	.11	.15*

A=fall down, B=patient education, C=infection, D=maintenance facilities, E=fire fighting, F=personal identification, G=communication with medical team, H=medication, I=blood transfusion; a=heavy workload, b=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c=inadequate deal, d=interpersonal problems, e=psychological burden, f=inadequate physical environment, g=role conflict; * $p<.05$, ** $p<.01$.

Table 3. The Impacts of Job Stress on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3.84	0.20		19.3	< .001	
Work place (Ref.=Others)	Ward	0.03	0.11	.03	0.3	0.79	3.71
	Operating room	0.12	0.13	.10	1.0	0.32	2.75
	Emergency room	0.16	0.14	.09	1.1	0.26	1.87
	Outpatient department	0.16	0.14	.11	1.2	0.24	2.45
Shift work (Ref.=Yes)	No	0.08	0.07	.08	1.1	0.29	1.71
Monthly salary (10,000 won) (Ref.=≥250)	< 200	0.09	0.09	.09	1.0	0.31	2.02
	201~249	-0.08	0.08	-.09	-1.0	0.32	1.98
Job stress		0.12	0.05	.16	2.6	0.01	1.01
F=3.3, R ² =.095, p=.002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수행 시 경험하게 되는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환자안전간호활동 증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5점 중 평균 3.67점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는 응급실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4.01점으로 보고한 Ju (2009)의 결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15)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평균 3.68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 (2015)의 연구에서 평균 3.63점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의 다양한 직종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결혼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미혼 간호사가 기혼 간호사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Kim, 2011; Kim & Gu, 1984; Park, 2016). 이는 기혼간호사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로 인해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간호사가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고, 아울러 미혼간호사에게는 조직적 차원에서 심리적 지지를 도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09)의 연구에서 4.40점, Lee (2015)의 연구에서 4.38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Choi, Lee와 Lee (2010)의 연구에서 4.25점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전반적인 환자안전간호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변함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따라 체계화된 지침을 가지고 환자안전간호활동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Yoo, & Kang, 2014)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 정도의 차이는 현재 근무부서, 근무 형태, 급여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래 근무자, 상근근무자, 월급여수준이 200만원 미만

인 간호사가 상대 집단에 비해 환자안전간호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 Song (2016)의 연구에서도 상근근무자가 교대근무자보다 환자안전간호활동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잦은 근무스케줄 변화의 결과로 업무 몰입도가 떨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Song, 2016). 이는 최근 의료계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안전 관련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들에 대하여 자체적인 표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병원 종사들에게 교육 등을 하고 있어(Choi et al., 2010) 외래간호사들도 발생빈도가 높은 영역에서 환자안전간호활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급여수준 200만원 미만인 간호사가 201~250만원 보다 환자안전간호활동이 높았다. 이는 급여가 낮은 간호사가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업무량과 중이나 인력부족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료오류와 의료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Nam, 2010),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간호사 모두가 표준에 적합한 실무를 하도록 근무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환자안전간호활동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는 환자안전간호활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Park (2016)과 Kim (2012)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제반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 수행을 의미하며, 간호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며,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은 낙상, 감염, 투약, 욕창 등과 같이 일반적 간호업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안전간호활동과 간호업무수행능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Park, 2013). 또한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은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Park, 2015)으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안전간호활동은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전문직의 역할갈등', '병동의 물리적 환경'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12)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하위

영역 중 '역할갈등', '간호사의 대한 대우' 영역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같은 개선되지 않는 업무환경과 부적절한 보상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자안전간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향후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영역이 환자안전간호활동의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수준이 다소 높은 본 연구대상자인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Yi (2012)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업무성공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에 직무 스트레스는 간호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Park (20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Selye (1976)는 스트레스란 신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불특정한 반응이며, 스트레스는 잘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로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스트레스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는 부정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과 강도에 따라 건강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적당하면 작업능률이 좋고 직무수행도 원활이 이루어지지만, 너무 낮거나 높으면 작업능률 및 직무수행이 떨어지는 역U자 관계라고 했다. 또한, Yerkew와 Dodson (1908)는 구성원들은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과도하거나 과소한 스트레스보다 오히려 개인 및 조직을 위해 도움이 되며, 창조적 행동과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향후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간호활동을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직무 스트레스 임계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간호사가 직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환자 안전 간호, 간호사 건강 보호와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일 지역 중소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환자안전간호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환자안전간호활동과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 임계치를 확인하거나 직무 스트레스 하부영역이 환자안전간호활동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사시점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정적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개인 및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간호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자안전간호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04). *Hospital survey on patient culture*. Publication No. 04-0041. Available from <http://www.ahrq.gov/qual/hospiculture/>
- Choi, J. H., Lee, K. M., & Lee, M. A. (2010).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nurses'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their safety ca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1), 64-72.
- Choi, Y. J. (2009).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Jeong, E. H. (2015). *Professional self-concept, stress, clinical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Jeong, J., Seo, Y. J., & Nam, E. W. (2006). Original articles: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nursing divisions of two university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1(1), 91-109.
- Ju, J. H. (2009). *ER nurses's job stress main factors influencing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im, H. Y. (2011).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operating room nurse's nursing task performanc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J. E., Kang, M. A., An, K. E., & Sung, Y. H. (2007). A survey of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related to hospital culture and reports of medical erro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3(3), 169-179.

- Kim, J. H. (2015). *Clinical nurses's professionalism,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Kim, J. M. (2011). *Professionalism,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M. J., & Gu, M. O. (1984).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e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28-37.
- Kim, M. R. (2011). Concept Analysis of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1), 1-8.
<https://doi.org/10.4040/jkan.2011.41.1.1>
- Kim, N. R. (2015).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organizational empowerment and patient safety culture in ICU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Y. M., & Yi, Y. J. (2012). Influence of job stress and empowerment on clinical nurses'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Korean Academy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58-265.
<https://doi.org/10.5807/kjohn.2012.21.3.258>
- Kim, Y. S. (2012). *Clinical nurses' autonomy, job stress and job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7). *Guidelines for hospital evaluation program*.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Lee, G. O. (2009). *study on nurse manager leadership and patient safety-related nursing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M. J. (2015). *Effects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y among nurses in small to midium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W). (2011). Available form: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Nam, M. H. (2010). *The cognition level on the patient safety and safe nursing activities among hospital nurses in Bus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Busan.
- Park, E. H. (2013). *Nurse practitioner's awareness on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and activities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ark, J. W. (2016).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job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for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S. H. (2015). *Effects of psychiatric nurse's awarenes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nurs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rk, S. J. (2009). *A study on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Selye, H. (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 Hill
- Son, S. S., & Yang, S. J. (2014).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2), 189-199.
- Song, J. S. (2015). *The sense of ethics and activities for patients' safety in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Yerkes, R. M., & Dodson, J. D. (1908). The relation of strength of stimulus to rapidity of habit-formation. Punishment: Issues and experiments (pp. 27-41) Appleton-Century-Crofts, New York <https://doi.org/10.1002/cne.920180503>
- Yoo, J. H., & Kang, K. A. (2014). Survey of oncology nurses'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Asian Oncology Nursing*, 14(2), 119-126.
<https://doi.org/10.5388/aon.2014.14.2.119>